

지역 매아리

고창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마쳐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24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7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합장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고창군의회 의원을 대표해 최인규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틀더,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는 의정전(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3개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일부 사업장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여 대책 및 대안을 강구하고 해당 관계 부서에 전달하겠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불편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만성질환자 조기검진 기관 간담회 실시

정읍시보건소는 24일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조기 검진에 참여하는 지역 내 내과 및 안과 의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보건소는 검진 대상자가 해당 의원 방문 시 검진과 함께 고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 합병증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검진결과에 의원에서 개별 발송하고, 유소견자에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고혈압·당뇨 교실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해 보건소는 만성질환자 200명을 모집해 지역 내 내과 8개소, 안과 4개소와 함께 합병증 조기 검진을 4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과 8개소는 김춘식내과를 비롯해 김형식내과와 연세김창훈내과, 이충섭내과, 열린내과, 장내과, 장희성내과, 정음내과다. 안과 4개소는 문성강안과와 정음안과, 밝은안과, 스마일안과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며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것이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해상경계 분쟁, 이제 그만!

부안-고창 해상경계 현재 결정문·도면 송달로 명확히 밝혀져

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경계 분쟁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확정 도면이 송달됨에 따라 그동안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던 양 지자체간의 해상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번에 송달된 현재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확정 도면에 따르면 곰소만 해역의 경우 갯골 남쪽 갯벌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창군 관할을 인정해줬으나 모항 서쪽 해역과 곰소 동쪽 해역은 고창군 관할에서 부안군 관할로 새롭게 결정했다.

위도 해역은 해상풍력단지 조성되는 해역을 기준으로 그 중간으로 해상경계를 확실히 이 선의 서쪽은 부안군 관할에서 고창군 관할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위도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조성 해역의 관할권 확보를 통한 개

발이익 독점과 종전 해상경계구역이 앞바다를 가로막아 공해상까지 뻗어 나가지 못하고 갇힌 상태에 있어 이를 타개하고 공해상까지 뻗어나가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부안군을 상대로 현재에 관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곰소만 해역은 위도 해역과는 반대로 부안군에서 고창군을 상대로 작년 8월 현재에 심판 청구를 했다.

부안군은 종전의 해상경계선이 지나치게 고창군 쪽에 치우쳐 불합리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목적에 따른 것으로 곰소만 중앙부는 종전대로 고창군 관할이 인정됐지만 곰소만의 좌·우측 해역은 이번에 부안군 관할로 넘어오게 됐다.

양 지자체의 청구내용에 따른 현재의 인용 결과를 살펴보면 고창군은 위도 해역 8만 6700ha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으나 8.4%에 해당하는 7300ha에 대한 관할권만을 취득했고

부안군은 곰소만 해역 4357ha의 관할권을 주장해 50.2%에 해당하는 2190ha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했다.

특히 새롭게 편입되는 해역에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의 존재 여부를 보면 고창군에 편입되는 위도 해역에는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부안군에 편입되는 곰소만 해역에는 김과 바지락 양식어장 등 20여개소가 넘는 고창군 처분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위도 해역의 경우 어업면허 어장이 없고 종전대로 어선 조업과 선박통항 등이 가능해 부안군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안군은 이번 현재의 해상경계 결정내용에 대해 해역별 특성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선열들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이어가

정읍시, 이평면 조소마을서 전봉준장군 순국 124주기 추모제 가져

전봉준장군 순국 124주년을 맞아 24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에서 그의 사상과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한 전봉준장군 추모제가 열렸다.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전해철)가 주관한 추모제는 이평면 조소마을에 있는 전봉준 단소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단체와 지역주민, 천안전씨문중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추모제는 전봉준장군 행적 소개와 전해철 이사장의 추념사, 유신섭 시장과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정읍, 고창)의 추모사 그리고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 시장은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해로, 전봉준장군 추모제를 통해 그동안 기념일 제정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극복하겠다"며 "갑오선열들께 부끄럽지 않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봉준장군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고지도자로 황도현 전투



대승을 시작으로 전국적 항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일본과 연합한 관군과의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 뒤 정읍을 거쳐 순창에 피신하였다가 옛 부하였던 김경천의 밀고로 체포돼 일본군에 넘겨져 서울로 압송됐다. 재판을 받은 뒤 1895년 3월 30일(음력) 교수형에 처해졌다.

시신은 찾을 수 없고, 1954년 천안전씨 문중이 뜻을 모아 단비를 설립했다. 그 뒤 매년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이후 뜻있는 종인들이 성금을 모아 단소 주변 임야를 구입하고 묘역을 확장·정비하여 현재 모습의 단소가 조성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과 국립식량과학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전남 함평군이 24일 함평군청에서 고품질·기능성 식량작물 생산·소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 함평군 등 5개 기관과 기능성 식량작물 생산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김두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회장 박인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운행)은 24일 함평군청에서 고품질·기능성 식량작물 생산·소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부안군 우리밀영농조합법인 생산농가 30여명과 함평군 나비골물승영농조합법인 생산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5개 기관은 국내 식량작물

물산업 활성화를 통해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고 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기능성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종자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신품종의 실용화를 위한 종자생산 및 기술지원을 담당기로 했다. 또 부안군과 함평군은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균일한 품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며

아이쿱생협에서는 계약된 식량작물 구매 및 이를 활용한 가공품 생산·판매를 통해 소비 확대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산 밀의 경우 재배조건이나 품질, 가격면에서 우위가 있는 외국산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5개 기관이 협력해 생산한 고품질·기능성 식량작물이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치유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작품 구상하기 좋은 정읍으로 오세요”

시, 방송 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정읍시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작품을 제작해오고 있는 방송 관계자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명소와 먹거리, 볼거리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특히 정읍에서의 체험이 작품 구상으로 이어지고, 실제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읍만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읍 두루두루 둘러보기를 주제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팸투어에는 방송 제작 PD와 작가 27명이 참여하고 있다.

첫 날, 참가자들은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을 시작으로 정읍농악 체험과 함께 송죽마을에서 숲타닥타닥 힐링투어도 가졌다. 이어 최고 품질 한우로서의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단풍미인한우를 맛본 후 뒤로는 내장산 망해봉을, 앞으로는 용산저수지를 두고 있는 내장산 골프리조트에 여장을 풀었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전설의 쌍화차거리를 찾아 지황을 비롯 정읍에서 생산된 20여 가지 특등급 약재를 달여 낸 쌍화차를 맛볼 예정

이다. 이어서 내장산을 찾아 날로 푸름을 더해가고 있는 청단풍 터널을 산책하며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한 후 내장산 주지인 도원스님과 함께하는 차담도 갖는다.

참가자들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내장금'의 궁중음식을 소재로 한 대장금 산체정식을 맛보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아 황도현전승일(5월 11일)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의의 등을 되새길 예정이다.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인 '내장금'의 주인공인 대장금은 조선왕조 중종(中宗)의 총애를 받은 의녀(醫女)로 알려진 인물. 산내면 장금리가 고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는 이를 스토리텔링화해 대장금 마실길을 조성했고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허윤정 작가는 "정읍이 많은 이야기와 먹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주변 분들께도 정읍을 널리 알리고, 방송의 소재로도 활용해 정읍의 맛과 멋과 흥을 제대로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describing the wine's quality and availability.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images of gift se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